

가족나들이, 이곳이 좋아요

봄,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산과 바다와 꽃과 나무에 봄빛이 쉬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남구에는 집만 나서면 따뜻한 봄 햇살과 꽃들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떠나보자.

1 장자산의 '순길'

이기대와 오륙도를 굽어보는 용호동 해안 최고봉이 장자산이다. 용호동 2동 통일아파트 옆의 견성암 앞쪽을 돌아 약수터를 지나는 길이 쉽다. 이곳에서 장자산 정상까지는 1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약수터에서 50m를 지나면 얇은 계곡이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면 작은고개가 나온다. 정상인 장산봉을 향해 걸다 보면 산객의 얼굴은 어느새 봄꽃으로 붉게 물들어 있을 것이다.

2 이기대의 '음성'

용호3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대(臺)로 용호하수처리장에서 고개 하나 넘는 곳에 있다. 초입길을 들어서면 뒤편 같은 이팝나무가 잔가지를 흔들고 붉은 동백이 뚝뚝 봄을 털어내고 있다. 2km 정도 해안가 일대는 울창한 송림과 기묘묘의 바위절벽으로 경관이 빼어나 날 뿐 아니라 낚시꾼의 낚시터로 아주 좋은 곳이다. 나무데크로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어있기에 오감을 얻어두고 걷는다면 자연소리가 귀에 고여들 것이다.

3 오륙도 해맞이공원의 '숨결'

오륙도 SK뷰아파트 옆에 조성된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바람의 언덕이라 불려도 좋을 듯하다. 이곳에서

면 오륙도가 내려앉은 바닷바람이 유채꽃 향기와 함께 전신을 휘감는다. 37.190m 규모로 조성된 꽃단지에는 지금 노란색 유채꽃이 하늘과 바다까지도 이어준다. 이곳은 2010년,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688km를 잇는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의 시작점으로 지정되었다. 동해안의 봄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백운포의 '미소'

천주교공원묘지 근처의 내리막길 끝자락에 백운포가 있다. 기다랗게 늘어진 방과제에는 사시절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이른 봄, 학꽂지 시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변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과 80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오륙도 앞바다의 절경을 보며 푸른 잔디밭을 산책하는 것도 일품이다.

5 신선대의 '눈길'

신선대는 용당동 해변 좌안의 바닷가 절벽과 산정을 총칭하여 말한다. 신선대 정상으로 오르는 길 1.4km는 개나리와 벚꽃, 동백이 절정을 이루었고, 섬취퐁나무, 마삭령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피나무가 새잎을 피워올렸으며, 멧비둘기, 굴뚝새, 바다쇠오리 등이 흔적을 많이

한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은 명승지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발아래로 보이는 오륙도와 조도, 맑은 날에는 지평선 멀리 나타나는 대마도 전경을 관망할 수 있다.

6 UN기념공원·평화공원 일대의 '온기'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은 한국 전쟁 때 참전한 16개국의 전몰용사 2,300 여명이 잠든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 참전 21개국의 조각가들이 기증한 34점의 조각품이 전시된 유엔조각공원이 있다. 인근에는 바다분수, 파고라, 조깅코스 등이 어우러진 평화공원과, 박물관과 문화회관이 있어 봄 햇살과 함께 주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7 대연수목원의 '향기'

대연수목원은 허브원, 침엽수림원, 오륙도원, 수벽원, 낙엽교목원, 상록활엽수원, 죽림원, 무궁화품종원, 유실수원 등 식물의 생태별로 600여 종의 수목이 전시되어 있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최고다. 곳곳에 설치된 정자나 간이 벤치에 앉으면 생태하천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천 옆 화단에 고개를 내민 노랑꽃장도, 왕원추리, 털머위 등을 바라보면 온몸에 신춘의 기운이 돈다.

8 우룡산공원의 '눈짓'

대연중학교 정문에서 오르면 우룡산공원의 표지석이 보인다. 입구의 1km 벚꽃길은 예로부터 이름난다. 꽃비가 되어 떨어지는 벚꽃잎을 온몸으로 맞는 사람들의 발걸음



도 꽃잎처럼 가볍다. 고개를 숙여 몸을 낮추다면 제비꽃, 현호색, 할미꽃, 광대나물꽃과도 눈을 맞출 수 있다. 우룡산 정상에는 부산항과 광안대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룡정이 있다.

9 황령산의 '손짓'

황령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

러 갈래다. 대연동 경성대를 들머리로 해서 오르는 임도 코스가 비교적 안전한 데다 길이 넓고 부드러운데다 함께 할 수 있다. 산행시간은 2시간 30분쯤 걸린다. 경성대 인문관에 닿기 전 언덕길 왼쪽 산자락길을 타고 올라가면 진달래가 곳곳에서 손을 흔든다. 문현동 현대2차아파트를 들머리로 오르는 임도로 넓

고 편하다. 산길은 돌산고개에서 남구방향으로 20m쯤 내려오면 왼쪽으로 만난다. 산행 초입에서 바람고개까지 넉넉잡아 20분이면 충분하다.

10 대학가 일대의 '시선'

대학가에도 봄이 한창이다. 우리구는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등이 있는 대학로 일대를 문화와 젊음이

함께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부경대는 담장을 허물고 목재데크와 벤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와 낭만의 거리로 거듭났다.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들어선 부산예술회관도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거리를 지나는 대학 새내기들의 손에도 한 움큼의 봄향이 들러 있다. 김정화 기자

■ 남구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 접수 ☎ 644-7330, 607-6389

교 실	요 일	시 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기간	접수기간
에어로빅교실	월·수·금	11:00~12:00	20명	백운포체육공원	6. 01 ~ 7. 31	4. 25 ~ 5. 31 선착순 마감
당구교실	화·목	11:00~12:30	20명	나이스당구장		
수영	A반	12:00~12:50	30명			
	B반	13:00~13:50	30명	용호레포츠		
	C반	14:00~14:50	30명			
	D반	12:00~12:50	30명	대호레포츠		
	E반	13:00~13:50	30명			
	F반	12:00~12:50	30명	녹주소포녹스		
탁구	G반	13:00~13:50	30명			
	A반	10:00~11:30	15명			
	B반	11:30~13:00	15명	유엔탁구장		
테니스	월·화·목·금	09:30~11:00	20명	백운포테니스장	5. 01 ~ 5. 31	4. 25 ~ 4. 30
요가	A반	10:00~12:30	15명			
	B반	09:00~10:00	25명			
	C반	10:00~11:00	25명	남구생활체육회 교육관		
	D반	11:00~12:00	25명			
	E반	15:00~16:00	25명			
	F반	09:30~10:30	25명	비커스호프점 2층		
지넨반	G반	11:00~12:00	25명			
	A반	18:30~19:30	25명			
	B반	19:00~20:00	25명			
골프	C반	09:00~10:30	20명			
	D반	10:30~12:00	20명			
	E반	13:00~14:30	20명	대원골프프러자		
볼링	F반	19:00~20:30	20명			
	A반	10:30~12:00	35명	우일볼링장		
	B반	13:00~14:30	35명			
아침과점교실	생활체육주제수업	06:20~06:50	000	선정체육도하교(우일2동)		
	생물체육주제수업	06:00~07:00	000	부산광역시도하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도하교 부산연수원		